

05.02.2010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후 6:1-2)

곰팡이의 문화적이며 의학적인 면을 보세요. 부드러운 빵, 부풀어 오르는 빵을 만드는데는 yeast라는 일종의 곰팡이가 필요합니다. 또 포도를 발효시켜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나 우유에서 치즈를 만들어 내는 것이나, 된장이나 청국장이 되기까지는 곰팡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항생제를 만들수 있었던 것도 곰팡이를 이용한데서 비롯된 것이며, 장기 이식수술에 필요한 cyclosporin이라는 면역억제제도 곰팡이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곰팡이까지도 유익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헛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후 6:1). 여기서 헛되다는 단어는 케노스(kenos)로 비어있다, 든 것이 없다, 미련하다, 헛되다는 (empty, empty-handed, foolish, vain)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요 1:17).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성스럽게 살게 하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결과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입니다. 창 1:2에서 나오는 땅은 '하나님에 대해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깔린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창 1:28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 1:2이나 창 1:28에서 나오는 땅은 히브리어로 에렛츠(ereetz)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7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땅은 아다마(adamah)입니다.

에렛츠는 구약에서 약 2,400번 나오고, 아다마는 약 200번 나오는데 차이는 무엇입니까? 에렛츠는 세상의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국의 땅을 말할 때는 에렛츠를 씁니다. 인간의 정치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창 4:16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늦 땅에 거하였다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땅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렛츠입니다. 반면에 아다마는 사막이나 광야가 아닌 농사가 가능한 땅을 말합니다.

에렛츠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해야하는, 다스려야 하는 세상 땅을 말하고, 아다마는 신앙으로 개간하는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 3:23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밖으로 내보내신 이유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토지는 아다마입니다. 왜 이 땅을 갈아야 됩니까?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 3:17에 보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땅은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땅이 저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렛츠에서 회개할 때 아다마가 되고, 아다마에서는 끝까지 신앙으로 해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아다마는 그냥 삽이나 곡괭이로 하는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신앙으로 농사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창 2:9에 나오는 땅에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땅 역시 아다마입니다. 선악이란 영적인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영 곧 말씀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아다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내는 땅이기에 아담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 12:1 볼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본토나 땅은 다 에렛츠로 나와있습니다.

본토는 갈대아 우르를 말하고, 지시하시는 땅은 가나안 땅으로 둘 다 세상 땅입니다. 하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으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과연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오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까. 자기에게 임한 말씀을 좇아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창 12:4). 그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남으로 자기와 자아와 자력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람에게 드디어 말씀과 동행하는 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창 12:4, 히 11:8).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 12:7, 13:18, 22:9). 그래서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바쳤습니다 (창 22:2). 여기서도 땅이라는 단어는 에렛츠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여호와이레가' 된 것입니다 (창 22:14).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이레는 여호와가 준비한다는 뜻이잖아요?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공간에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시 31:19).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이겨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를 크게 하시려고, 영원히 하시려고 준비하신 시련입니다 (벧전 4:12). 그 시련 속에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는 것도 있습니다 (딤후 3:12, 마 5:11-12).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그림자처럼 다니며 헛된 일에 분주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시 39:6, 시 94:11).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길은 믿음, 순종, 행함에 있습니다! 신 32:47 볼 때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허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중심, 말씀 우선으로 예배를 드리세요!